

현장시선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도시공원 일몰제로 오등봉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겠다며 제주도가 추진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제주시가 지난 7월 실시계획인가 및 시행승인을 고시했다. 2001년 8월 11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 방치되며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된지 19년 11개월만에 해지를 10여일 앞두고 민간특례개발로 도시공원을 유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오등봉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도예산으로 매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는 예산과 매입시간이 부족하다는 일방주장을 근거로 오등봉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전환했다. 민간특례사업의

오등봉공원 지키기 위한 공익소송, 관심이 절실하다

특성상 공원 총 면적의 30%를 개발하고 70%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보니 개발에 대한 특혜가 주어진다. 최대한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 나머지 공원부지를 제대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는 특혜와 비리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붙었다. 제주도도 다르지 않았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모지침 위반 논란과 전직 고위공무원의 영향력 행사 의혹이 터져 나왔다. 해당 계획이 사전에 유출돼 투기에 활용됐다는 논란도 일었다. 인·허가 과정에서는 환경훼손과 상하수도 공급·처리문제, 경관훼손, 교통난 등 각종 논란이 이어졌다. 또한 제주시는 지난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서 공원의 본질적 기능상실과 대규모 주택시설로 인한 경관훼손 등으로 수용 불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은 가중됐다. 어떻게 하면 인허가를 막을지 고민할 수 있을지를 두고 사업자와 협의기관의 회의를 했다는 내용도 터져 나왔다. 더 큰 문제는 행정절차상의 하자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멈추지 않고 진행돼 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문제가 전라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논란이다. 전라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이후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해야 할 협의내용을 부과받았다. 그중에서 여름철에 확인해야 하는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을 제주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게다가 제주도의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통과 과정에서 제시된 부대의견 중 하나인 하수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지킬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제주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참여할 업체를 찾지 못해 계속 유할

되며 사업내용의 재검토까지 거론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을 충족하려면 하수처리와 관련한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계획을 변경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무리하게 절차를 이행하면서 곳곳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제주도민을 원고로 하는 공익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생태계를 가진 생명의 보고이자 지역 주민들의 교육공간이며 문화향유 공간인 오등봉공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가 목표라는 제주도가 과연 이곳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이번 공익소송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다. 공존의 공간이자 도민의 중요한 자산인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해 공익소송에 도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사설

불법체류자 백신접종 너무 낮아 문제다

제주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이제야 절반을 막 넘겼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 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 그런데 도내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미등록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은 너무 저조해 큰 일이다. 제주도가 다음달부터 위드코로나 방역체계를 전환할 방침이어서 이들의 접종률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불법 체류 외국인은 지난달 기준 29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 받고 백신을 접종한다. 제주도는 올해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이들은 4월부터 시작했다. 문제는 도내 불법 체류 외국인 중 상당수가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도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를 고려하면 전체 불법 체류 외국인 중 약 70%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얘기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통보 의무면제제도'도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처럼 많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것은 혹시 모를 단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현재 도내 백신 미접종자는 적잖은 편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 차례도 백신을 맞지 않은 도민이 7만5558명으로 전체 접종대상자의 13.1%에 이른다. 특히 20~30대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어 우려된다. 제주도는 이들이 하루빨리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지감귤 출하초기 '비상'... 총체적 대응을

본격 출하기를 맞은 올해산 노지감귤이 벌써부터 가격관리로 비상이다. 능가마다 예상 못한 긴 가을잠마 탓에 상품성 하락에다 하우스감귤 재고도 적지 않아 가격 약세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가 크다. 한해 감귤 적정가격 형성은 출하초기 가격흐름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도와 농협, 능가가 총체적 대응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노지감귤 평균가격은 이달 6일 기준 8700원(5kg)으로 작년 같은기간 9800원에 비해 11% 이상 낮게 형성됐다. 극조생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에도 불구하고 8~9월 잦은 비날씨로 상품성 있는 당·산도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더욱이 추석 이후 추운 과일소비 동향에다 여전히 많은 하우스감귤 재고량도 가격 반등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이 작년보다 1만 8000t 가량 줄어든 49만7000t에 그칠 것이라 전망에 적정가격을

기대했지만 출하초기 가격약세에 능가들 발만 동동 구르는 형국이다. 최근 과일 소비부진과 하우스감귤 재고 소진 부진을 조기에 해소 못 할 경우 극조생에 이어 조생 노지감귤 가격까지 계속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도와 농협, 생산능가가 발빠른 대응태세로 나서야 한다. 도와 농협이 하우스감귤 재고량 소진을 위해 대대적인 소비촉진행사를 계속 이어 나가고, 능가에선 매우 안 좋은 소비시장 여건을 감안해 감귤출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면서 상품성 있는 감귤 출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일부 능가·산도인들의 비상품 유통이나 강제착색 등 저급품 출하행위는 적정가격 유지에 절대적인 암적 요인이다. 출하초기에 더더욱 엄벌해야 한다. 감귤 가격이 2018년산과 2019년산 폭락 이후 2020년산 반등국면을 맞았다가 올해 다시 폭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서두를 때다.

열린마당

감귤 품종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오현우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농업연구사

감귤 수확의 계절이다. 농민 대부분은 당도가 높고 재배하기 쉬우며 수량이 많고 해거리가 없는 품종을 원한다. 안타깝지만 그런 품종은 없다. 품종 갱신이나 신규 과원 조성용으로 묘목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당도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둘째 상품성을 너무 선호하지 마라. 셋째 품종의 특성을 확실히 파악하라. 넷째 종자업체에게 구입하고 품종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하자. 다섯째 품종 혼입이나 다른 품종을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당도가 높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품종보다는 적당한 당도에 해거리가 적고 단위 생산량이 높은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감귤 농사 경험이 적거

나 없다면 주변에 많이 재배되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을 권한다. 상품성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품종 특성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까운 농업기관을 방문하면 상품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적극 행정 카드 뉴스를 통한 정보도 유용할 것이다. 묘목의 구입은 등록된 종자업체에게 하고 품종보호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가 돼있는지 확인한다. 감귤 묘목은 지름이 연필 두께 정도 이상에 궤양병이 없고 규격표지 부착된 것을 구입해야 한다. 묘목 구입 후에는 묘목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품종명과 거래 본 수가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품종 혼입은 수년 후에도 알 수 있어서 종자 분장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상품성으로 대박을 터트리겠다는 생각보다 나한테 맞는 품종을 선택해 잘 재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온 주밀감도 잘 관리하면 한라봉보다 좋은 품질의 과실을 생산해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뉴스-in

국민의힘 제주도당 사무처장 공모 '인기'

전국서 10여명 지원서 제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직자를 지휘 감독할 사무처장 공개 모집에 전국에서 10여명이 지원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10월5일까지 제주도당 사무처장 공모에 10여명이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기간이 1년에 불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경쟁률이었다는 평가. 한편 도당 사무처장은 중앙당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도당 사무처의 소관 업무와 소속 사무처 당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리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오는 1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 이상민기자

하고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및 평등 인식 함양을 위한 것으로 예방은 물론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 등 대응방안에도 중점. 안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한 전 공직자의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 함양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윤형기자
"내가 만드는 교육정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 교육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참신한 교육정책 아이디어를 공모.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제2차 공모제안의 주제는 제주교육 5대 교육시책 및 혁신과제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 제주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소관 업무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으로, 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여·민원코너 제안접수창구를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 도교육청은 교직원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학생 및 학부모들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참신한 제안이 많이 접수되기를 기대. 오은지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김종현(前 누리슬루선 대표) 아버지
광산김공 재은(국가유공자·향년 94세)
께서 서기 2021년 10월 6일 12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10월 8일(금요일)
▶발인일시: 2021년 10월 9일(토요일)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2분향실(1층)
▶장 지: 동홍동 가족묘지
부인 김춘자
아들 김종현 며느리 정순영
공현 신정희
태현
딸 김순정 사위 강만생
순자 김진귀
손 김민호 손 강승협
지나 기협
민수 김인애
민성 지애
※ 연락처: 김종현 010-9032-2116
김공현 010-6205-7802
정순영 010-9109-5262

부고
김홍신(자영업) 어머니 김해김씨
임길(향년 100세)께서 서기 2021년
10월 7일 07시 4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10월 8일(금요일)
▶발인일시: 2021년 10월 9일(토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남원 의례회관
▶장 지: 양지공원
아들 김홍중(敍) 며느리 강수자
홍신 고순열
홍배 정선옥
홍선 박순열
홍림
딸 김신자 사위 오창언
신정 강찬중
신숙
※ 연락처: 김홍신 010-6310-3531
김홍배 010-2689-5234
김홍선 010-2686-3199
김홍림 010-6257-0367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진주강공
용택(한국화가·토마스아퀴나스·
향년 9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
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 올림이 도리어
우선 지
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10월 8일
아들 강경호 며느리 고인경
경남 강경림
딸 강미원 사위 김문봉
미야
전미 송중호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풍기진공 영석(국가
유공자, 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
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
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10월 8일
부인 이춘옥
아들 진항재 며느리 최경희
장녀 진희준 한현미
딸 진양숙 사위 안석철
정혜순 김해룡
김순화 윤평식
토지 급매 가격
1) 월드컵경기장 아래
대로면 865평 ★ 최저가 300만원★
2) 강정동 해안도로 200m 근접
바다 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건축가능, 아울렛예정지구
부근, 12m 계획도로 진행중, 총 480평 ★ 평당 130만원★
3) 강정동 해안도로 40m
741평, ★ 평당 200만원★ 펜션 및 전원주택지
4) 강정해안도로 점
607평 ★ 360만원★ 카페 최고부
5) 강정동 해안도로 100m
753평, ★ 평당 73만원★ 전원주택지, 투자용 최고
6) 강정동 해안도로위 땅
15m 건축가능, 바다조망 카페용 펜션용
총 376평 ★ 240만원★
7) 호근동 범섬 부, 최고 전원주택
360평, ★ 평당 200만원★ 건축 바로 가능
010-2102-5424 / 010-6275-5200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